금융권, 전통 시장 氣살리기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9일 월요일 제2988호 www.metroseoul.co.kr

한국영화 포스터 다 똑같다?

"대~한~민~국"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이 태극기 문양을 이용한 응원도구를 만들어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 메신저 글로벌 전쟁 치열

네이버-라인, 페이스북-왓츠앱, 텐센트-위챗 지구촌 가입자 각 5억명 이상씩 확보 '불꽃 쟁탈전'

한국, 미국, 중국이 모바일 메신저를 무기로 글로벌 IT 패권을 쥐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 페이스북, 텐센트가 각각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 '왓츠앱' '위챗'이 지구촌 전역에서 각각 5억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발 주자인 네이버 '라인'은 빠른 속도로 왓츠앱과 위챗을 따라잡고 있다. 한국 브랜드가 지구촌 인구의 10%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단군의 후손이 만든 최대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한·미·중 삼국지 경쟁서 네이버 라인, 괄목 성장

라인은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과 같이 스마트기기에서 무료로 문자나 동영상, 사진을 보낼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가입자 수는 5억명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네이버가 밝힌 라인 가입자 수는 4억5000만명으로 이르면 8월께 5억명, 연말에는 6억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라인의 최대 시장인 일본은 가입자 수가 1억명에 육박하고 있다. 태국이 2400만명, 대만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000만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스페인 1500만명, 멕시코가 1000만명이고 유럽이나 남미에서도 가입자가 급증해 1000만 이상 유저를 확보한 국가만 10곳이다.

페이스북이 지난 2월 20조원을 들여 사들인 왓츠앱은 최근 월간 활동 이용자(MAU) 수 5억명을 돌파했다. 페이스북 덕에 가입자 수를 많이 늘린 왓츠앱은 서비스 특성상 가입자 수와 MAU가 큰 차이가 없다.

가입자 목록에 6억명 이름을 올린 중국의 위챗은 4억명의 MAU를 기록하고 있다. 라인은 MAU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위챗보다는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중 3국이 벌이는 '모바일 메신저 삼국지'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바일 메신저는 '21세기 송유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를 공급할 송유관을 가진 나라가 힘과 부를 얻었듯이 지구촌 사람들의 연결통로인 모바일 메신저를 확보한 나라가 지식·정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3대 모바일 메신저는 대부분 게임, 스티커, 음악, 음성통화 등을 탑재하고 있다. '애니팡'과 같은 게임이 국민 모바일 게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카톡이라는 매개체 덕분이다.

이 플랫폼에서 음악을 듣고 통화도 할 수 있으며 종이 편지나 엽서를 예쁘게 꾸미듯 유료 스티커로 자신의 메신저를 돋보이게 한다.

특히 현재 모바일 메신저의 유료 수익 모델은 몸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서비스의 궁극 목표는 금융과 주식을 포함한 상거래다.

즉 은행에서 송금을 하고 예금을 하듯이 메신저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고 할인마트나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생필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바일 메신저에서 숨쉬는 것 빼고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단순한 소통 도구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가 구글, 애플, 이베이, 아마존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라인의 경우 월 이용자 1명당 9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야생 진드기 조심하세요

6월이 가장 위험… 치사율 46%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돼 1년 동안 확진 판정을 받고 증상이 발생한 SFTS 환자 35명을 역학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8일 공개한 '국내 SFTS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SFTS 의심 사례 신고는 420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1명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증상이 발생한 35명 중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치사율은 45.7%에 달했다. 이는 중국(6%)이나 일본(39.6%)보다 높다.

발생 시기를 월별로 보면 6월(9명·25.7%)에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세이상 환자가 80%(25명)였다.

거주지는 주로 시골(26명·74.3%) 지역으로, 직업 역시 농업(19명·54.3%)·임업(6명·17.1%)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 6명 ▲경북 5명 ▲대구 5명 ▲전남 4명 ▲강원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환자 발생률이 높은 것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높은 평균 기온 때문에 SFTS의 매개 곤충인 작은소참진드기가 서식하기 유리한데다 중간 매개 동물인 말·사슴 등을 방목하는 초원이 많은 환경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모든 환자는 공통적으로 발열·오한(춥고 떨림) 증상을 보였다. 피로감(26명·74.3%)·의식저하(26명·74.3%)·설사(22명·66.9%)·식욕저하(21명·60.0%)·근육통(19명·54.3%) 등도 흔했다.

/정영일기자 prms@

김무성 당권 도전 선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4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먹튀 방지법' 추진

선거기간 '중도 사퇴 통한 단일화' 차단

새누리당은 8일 선거기간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전 종반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잇따라 사퇴한 데 따른 재발방지책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있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이틀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반환 규정은 없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5월19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여 만원 등 총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소속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6월1일),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5월29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5월16일)가 줄줄이 사퇴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이에 대해 "통진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으나 TV토론에 참여한 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퇴 후보의 선거 보조금 회수법안 통과에 앞장 서서 통진당과의 연대를 계속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유럽 금리 인하, 남의 일 아니다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산업부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다.

ECB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시중은행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를 현행 0%에서 -0.1%로 내렸다는 점이다. 초단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내린 것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동성을 쥐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은 ECB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손해가 나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금리는 기업·가계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ECB에 쌓아두는 은행에 벌칙을 가해 경제 전반에 돈이 돌게 하려는 ECB의 고육책이다. 이는 유로존도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0.5%로 8개월째 0%대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ECB의 이번 결정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행 역시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연속 금리를 연 2.5%로 동결해 왔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세우며 뾰족한 대책 없이 시간만 지나갔다.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지금, 한은이 보여줘야 할 것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액션'이다.

세월호 국조특위·가족대책위 공동선언문 세월호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7·30 재보선 투입되나

출마시 동작을 거론… 입각땐 문광부 장관 1순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이정현(사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 전 수석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의 거취와 관련,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다음달 30일 재보궐선거 차출설과 입각설이다. 만약 재보선에 투입된다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입각설은 이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각에 진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문광부 장관이 정부의 대변인 격이므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누구보다 정통한 이 수석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 전 수석은 국회의원 당시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직이 축소되지만 여전히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어젠다인 정부 3.0을 실천해야 하는 부서인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광부 장관 자리는 이 전 수석이 'KBS 보도 통제 의혹' 논란 과정에서 야당의 해임 요구를 받았다는 점에서, 안행부 장관 자리 역시 청와대 참모진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각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전 수석은 이번 주 중 새누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기자

청와대 홍보수석에 윤두현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에 윤두현 디지털 YTN 대표가 임명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현 수석의 후임으로 윤두현 디지털YTN 대표이사 겸 사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윤 신임 수석은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등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 작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윤 신임 수석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 심인고·경북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YTN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거쳐 YTN플러스 대표이사 겸 사장을 역임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분단의 상징 '판문점 갤러리' 9월 개관

●남북 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 판문점의 변천과 남북 회담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들어선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 판문점과 남북 회담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판문점 갤러리'를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예산은 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영화관 관람석 차별금지법안' 추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석을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구, 퇴임 후 자문료 등 1억4천만원"

김광진 의원 "'관피아 척결' 정면 배치… 재고해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합참의장 퇴임 이후 2년 동안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 내정자는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문료로 7800만원을 받았다.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377만원·유류비 1100만원) 제공과 함께 송파구 사무실(17평), 담당 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한 내정자는 또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을 지내면서 143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2년간 재직하면서 2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 배치되는 부분으로 한 내정자의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개조 여객선 28척중 10척 결함

윤재옥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현재 국내에서 운항 중이며 구조를 변경한 적 있는 연안여객선 28척 가운데 10척은 복원성이나 차량 결박인원 부족 등 크고 작은 결함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제출한 '개조된 연안여객선 복원성 분야 점검 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달 5~14일에 선원·선사 관리자 전원의 행방이 묘연한 청해진해운 소속 '데모크라시 5호'를 제외하고 총 27척의 구조 변경 연안여객선들을 검사한 결과 이중 10척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인천~제주 항로의 카페리 '오하마나호'의 경우 여객정원을 최초 595명에서 현재 937명까지 4차례 늘린 가운데, 현장점검 결과 발라스트(선내에 화물이 불균형하게 적재된 경우 복원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의 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포에서 운항하는 차도선의 경우는 고정식 발라스트 대신 물을 실은 채 운항하다가 이를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마산에서 운항하는 또다른 차도선(선명: 2사랑)은 당초 복원성에 대해 승인받은 조건대로 '청수탱크(우현) 및 연료유탱크(좌현)를 빈 탱크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윤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오하마나호 등 구조가 변경된 여객선들의 안전 조치 전반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투르 드 코리아 2014 8일 오전 경기도 하남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열린 국내 최대 국제 도로 사이클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4'에서 국내외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기계 핵심기술 빼돌린 7명 덜미

중국 업체로도 유출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망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몰래 빼돌린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농기계 핵심부품 제작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H사의 전직 전략영업팀장 이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H사에서 퇴사하면서 농기계 유압무단변속기 HST 설계도면 1551장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HST는 유압을 이용해 엔진 동력으로 농기계를 전·후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으로, H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3개 업체만 보유한 기술이다.

기술 중개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이모(구속기소)씨와 오모(구속기소)씨는 이씨가 빼낸 설계도면 가운데 44장을 받아 영업에 사용했으며 이중 13장을 중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로부터 도면을 받은 D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신용기금에 허위 발주서류를 제출하고 10억7900만원 상당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회복 조짐 보이는 동해안 관광경기 세월호 참사로 급감했던 동해안 지역의 관광지가 6월 첫 연휴를 맞아 관광객으로 북적여 관광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모처럼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강릉 오죽헌에서 관광객을 위한 강릉의 전통놀이 관노가면극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사진) 할머니가 8일 오전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배 할머니가 이날 오전 5시께 나눔의 집에서 운명했다고 밝혔다.

1923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배 할머니는 19살 때 절친한 친구 봉순이네 놀러 갔다가 정신대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중국 만주로 끌려갔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친구 봉순이와 함께 정신대에 자원했다가 멀고 먼 중국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했다.

배 할머니는 지병으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3년 전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의 가혹함에 대해 알려왔다.

배 할머니의 발인은 10일 경기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배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생존자는 54명으로 줄었다. /윤다혜기자

'1조8천억 대출사기' 조사 누설한 금감원 직원

중앙티앤씨 대표 등에 알린 혐의로 기소

1조8000억여원 규모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조사내용을 귀띔해준 금융감독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흘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50)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3급인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5)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43)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당일인 1월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서씨 등에게서 "금감원이 KT ENS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박 팀장으로부터 "KT ENS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사기대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인감과 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이 모두 가짜다. 업체는 4곳이고 부원장까지 보고됐다"는 대답을 듣고 서씨 등을 만나 조사내용을 누설하고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했다. /윤다혜기자

'다산콜 상담사 성희롱' 민원인 심판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서울시 종합민원센터인 '120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대학생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박씨 외에 중학생 A(14)군, 대학생 송모(19)씨도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A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송씨는 관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공중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모텔 일반전화 등을 사용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지난달 26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윤다혜기자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 혜택 확대

교육복지사업 지원 기준 학교서 학생으로 변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변경돼 전체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은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적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도입됐을 2003년 당시 사업비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수'로 삼았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이 많지만 교당 39명 이하인 지역에는 지원금이 필요보다 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전체 취약계층 학생 수'로 개선했다. /윤다혜기자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제14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의 한국관 모습. '근대성의 흡수'(Absorbing Modernity: 1914~2014)라는 국가관의 전시 주제에 맞춰 남북한 건축 100년을 조망했으며, 65개 국가관 전시 가운데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전경련, '산악관광 활성화'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악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제대로 산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보전과 파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해외에 활성화된 다양한 친환경 산악관광모델이 국내에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아소산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 농축산 복합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농축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테마파크에는 건강테마호텔, 목욕시설, 식당·유기농 축산물 판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반면 국내 대관령 목장은 초지법·백두대간법·상수원법 등 덩어리 규제로 숙박시설은 커녕 관광객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제공도 불법인 실정이다.

또 스위스·중국 등은 산 정상 부근·절벽 위에 숙박시설이 있어 일몰·일출을 보거나 종주여행 등으로 산에 1박 이상 머무르는 등산객의 명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고,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절벽 위 숙박시설도 불법이다.

왼쪽부터 스위스 빙하 위 몬테로사 산장, 국내 대피소 현황. /전경련 제공

이밖에 호주 열대우림 케이블카, 스위스 산악열차, 미국 요세미티 및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산악승마 같은 산악관광은 우리나라에서 위원회와 허가절차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규제완화와 제도정비를 통해 산악관광·산림치유로 인구 2만명 미만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프랑스 샤모니, 스위스 체르마트, 독일 뵈리스호펜 등과 같은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특구 도입 ▲산 정상부근·절벽의 숙박시설 허용 ▲산림체험시설와 친환경 숙박시설 법적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정비를 건의했다.

특히 사실상 진입장벽인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도 촉구했다. 케이블카의 경우 24년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 사실상 도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산지·초지 승마장 설립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절차는 환경단체 반대 등을 이유로 통과가 어렵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주소 없는 원룸·다가구 전국 144만 동

전국의 원룸·다가구주택 대부분이 동·호수 같은 법정 상세주소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145만 동 가운데 층·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1만1000동에 그쳤다.

나머지 99.2%는 법정 상세주소 없이 임의로 정한 동·호수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 주도로 상세주소를 전면 적용, 집행할 경우 수반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신청주의'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상세주소 적용 실태를 파악한 뒤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수술 뒤 패혈증 사망한 아기, 의료과실"

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김모(사망 시 6개월)군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1년 1월 태어난 김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6월 다시 입원해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한 지 2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김군이 패혈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고 김군은 며칠 뒤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윤다혜기자

황태 요리 맛보는 관광객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삼거리에서 열린 '2014 용대 황태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황태 요리를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착취 논란' 아프리카박물관 매각한다

올해 초 이주예술인 착취 논란을 일으킨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논란 때문에 골치도 아프고 신경도 못 쓸 것 같아서 팔려 한다"며 매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불과 4년 전 홍 의원이 박물관을 인수할 당시 매입가가 80억원인데다 비난 여론의 '포화를 맞았던' 곳이 새 주인을 쉬이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8일 이 박물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41 소재 박물관은 2010년 8월 4일 홍 의원이 80억5500만원에 샀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8월 20일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4억원을 대출받았다. 2006년 박물관이 문을 연 지 4년 만에 인수한 홍 의원이 다시 4년이 지나 새 주인을 찾는 것이다. /윤다혜기자

'다이어트 효능' 필로폰 판매한 일당 덜미

우산 손잡이에 숨겨 배송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런 혐의로 박모(44)씨를 구속하고 일당 정모(49)씨와 김모(37·여)씨 등 구매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 있는 판매총책 B(42)씨로부터 필로폰 약 24.7g을 받아 이 가운데 약 15g(5500만원 상당)을 구매자인 김씨 등 8명에게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필로폰 판매대금의 일부인 800만원을 환전해 B씨에게 송금했다.

조사 결과 판매총책 B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며 필로폰 판매 글을 올리면 국내에 있는 박씨와 정씨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배송과 대금 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필로폰을 우산 손잡이나 가방 손잡이 등에 숨겨 택배로 배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ydh@

서울시 봉사상 후보자 추천 받아

서울시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기부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시민과 단체에게 '2014년 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준다.

추천 대상은 기부선행, 시민화합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시민과 단체로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총 21명을 선정한다.

후보자 추천은 8월 4일까지이고, 후보자 추천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청 행정과, 주소지(단체 소재지) 자치구 표창담당 부서, 인터넷(kinh1980@seoul.go.kr) 등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행정과(02-2133-5824) 또는 관할 자치구 시민표창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변호사법 위반' 전 대통령실 자문위원 유죄

대법원 1부는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정당인)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A씨를 만나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10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넸다.

조사결과 실제 검찰에 대한 청탁이나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태국 해외 망명정부설 '솔솔'

전 총리실 장관 "군정 퇴진 압력 넣겠다" 의지 피력

군부 쿠데타로 정정이 불안한 태국에서 해외 망명 정부설이 계속 흘러나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레드셔츠' 운동가인 짜끄라폽 까이 전 총리실 장관은 국내외 쿠데타 반대 운동을 이끌기 위한 조직을 해외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짜끄라폽 전 장관은 "군정 반대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해외에 관리 조직을 만들겠다"며 "이를 망명 조직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국가를 거명하지는 않은 채, 인근 국가에서 이 조직을 가동해 국내외 쿠데타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국제 사회가 군정에 퇴진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같은 구상은 지난달 22일 쿠데타 직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일가가 해외 망명정부 수립을 검토 중이라고 탁신 전 총리의 법률 고문이 밝힌 뒤 나왔다. 로버트 암스테르담 변호사는 "군부 정권은 위헌이므로 해외 망명 정부가 태국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망명 정부 활동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태국 내부에서 망명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웃 나라에서 망명 조직을 허용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탁신 전 총리와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 헌법은 항구적 중립, 비동맹을 규정하고 있다"며 자국 내 태국 망명 정부 수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다.

방콕포스트는 탁신 전 총리조차 해외 망명 정부 수립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망명 정부를 지지할 경우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군부로부터 처벌받을 가능성을 탁신 전 총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태국 군부가 짜끄라폽 전 장관을 비롯해 반대파 인사 20여 명을 최근 왕실모독 혐의로 소환했다. 최고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법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NCPO 대변인은 사회 체제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왕실 모독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태국은 왕실을 모독하면 최고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교황의 숨은 묘기? 7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의 이탈리아 스포츠센터 동호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 묘기'를 선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게이츠 재산 이정도?

총 79조2000억원… 보스턴 주택 전부 사고도 남아

미국 30대 억만장자의 자산이면 미국 전체 주택의 6%를 살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의 자산만으로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의 모든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부동산 업체인 레드핀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게이츠(사진)의 자산은 775억 달러(약 79조2000억원)로 보스턴시의 단독

가옥, 콘도, 타운하우스 등 주택 11만4212채를 모두 사고도 남는 규모다.

게이츠보다 더 돈이 많은 월마트의 월턴가문(1548억 달러)는 워싱턴주 시애틀시(1115억 달러·주택 24만1450채), 텍사스 석유재벌인 코크 형제(860억 달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시(781억 달러·28만6629채)의 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의 자산 가치(635억 달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전 주택 28만214채(561억 달러)와 맞먹는다.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34억 달러)도 애리조나주 선시티 서부 주택(1만8934채)을 모두 소유할 정도로 부자다.

레드핀은 가상의 부동산 투자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미국 30대 억만장자의 자산 총 규모는 5820억 달러로 미국 전체 주택 가격의 6%를 형성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라고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MBLAQ regresa con una gran fiesta para sus fans

Música. Una de las sensaciones del *k-pop* vuelve a México para convivir con sus admiradoras y presentar su nuevo miniálbum, *Broken*

앰블랙 멕시코시티 상륙

metro Mexico

미니 콘서트 등 선보여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앰블랙(MBLAQ)이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9일(현지시간) 콘서트를 연다.

최근 몇 년 새 K-팝 열풍이 세계 각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에서도 한류 가수들의 인기가 높다. 특히 멕시코는 칠레, 아르헨티나와 함께 중남미 한류 열풍의 중심지로 꼽힌다.

인터넷으로 한류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K-팝 멕시코'의 운영자 카를라 델루시오는 "승호, 지오(G.O), 이준, 천둥, 미르(이상 앰블랙 멤버)는 멕시코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그 중 하나가 10곡 정도를 부르는 미니 콘서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서트 무대에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 춤 동작 배우기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신티아 발데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스마트폰도 신부 축성 받아

metro France

프랑스 리옹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축성을 해주는 신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노트르담 드벨콩브 성당의 프레데릭 르캉 신부. 그는 "런던과 니스의 성당에서 비슷한 축성식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전화에 축성하는 일은 천주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르캉 신부의 축성식에는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양한 기계가 등장한다. 그는 "태블릿PC, 카메라, MP3 그리고 보청기까지 모두 축성을 받을 수 있다. 소통을 도와주는 모든 기계가 축성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랑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6일>

코스피 1995.48 (−13.08)
코스닥 523.12 (−8.16)
금리(국고채 3년) 2.84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22.00 (−2.00)

뉴스&뉴스

KT,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참가 KT는 11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이동통신 박람회'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AE)'에 참가한다. 기가 인터넷 시대를 이끌 유무선 인프라와 융합 서비스를 선보인다. /KT제공

SKT 중국 스마트교육 진출

●SK텔레콤이 중국 스마트교육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SK텔레콤은 중국 중칭그룹과 지난 5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사옥에서 중국 1300개 학급 대상 '스마트교실 솔루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양사는 같은 날 중국 스마트 교실 솔루션 신상품 개발 및 시장 확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합의했다.

중칭그룹은 강의 평가 솔루션 분야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로, 중국 전역 약 2만여 학교에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다. /이재영기자

갤럭시 5종 미 국방부 승인

●삼성전자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KNOX)가 탑재된 갤럭시 단말 5종이 미국 국방 정보체계국(DISA) 승인 제품 목록에 등재됐다.

승인 제품 목록에 포함된 단말은 갤럭시S4, 갤럭시S4 액티브, 갤럭시 노트3, 갤럭시 노트 프로12.2, 갤럭시 노트10.1 2014 에디션으로 모두 안드로이드 4.4 킷캣 버전을 사용한다. 이번 등재로 미국 국방부 직원들은 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통신망에 한해 녹스가 탑재된 삼성 안드로이드 단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 정보체계국 승인 제품 목록은 미국 정부 기관들의 안전한 공무 수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식 승인한 것으로,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기능의 휴대용 단말 목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재영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삼성 지배구조 재편, 주가강세 '화답'

SDI 최대 수혜주 꼽혀…SDS·에버랜드 상장 관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움직임에 수혜주로 떠오른 삼성 계열사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가 최대 수혜주로 꼽는 삼성SDI는 이틀째 급등했다

삼성이 지주사로 거듭나면 국내 증시의 삼성 쏠림 현상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내년 초 상장할 경우,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근접한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24개 상장사(우선주 포함)의 시가총액은 335조5298억원으로 국내 증시의 전체 시총에서 2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그룹의 발표대로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내년 초까지 증시에 상장한다면 삼성그룹의 시총은 364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시총 대비 29.2%에 달하는 덩치다.

삼성 지배구조 재편의 최종 종착지는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라고 증권업계는 입을 모았다.

김병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인적분할 등을 통해 설립된 삼성SDI 홀딩스, 삼성전자 홀딩스, 삼성물산 홀딩스가 3사간 합병으로 통합 홀딩스가 되면 추후 삼성에버랜드와의 합병을 통해 지주사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이 중 삼성SDI가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 삼성 SDI는 오는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둔 데다 삼성물산(7.4%), 삼성엔지니어링(13.1%), 삼성정밀화학(14.7%), 에스원(11%), 삼성에버랜드(8%)의 지분을 그룹 내 관계사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배구조 재편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SDI의 주가는 최근 2거래일(3~5일)에 걸쳐 11% 가까이 급등했다. 최근 이 회사의 주가는 삼성전자에 흡수합병될 가능성에 주춤했지만, 지난 3일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주식 3442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

제일모직 역시 이 기간 10% 넘게 올랐다. 삼성물산은 연일 상승 흐름을 타다가 5일 장중 7만83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삼성 SDI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종 지주회사가 될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8% 갖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삼성에버랜드의 기업 가치가 상장 후 크게 오르면 지분을 처분해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에버랜드가 상장하면 주가는 최고 365만원, 시총은 최고 9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삼성 SDS의 경우 상장 후 주가는 최고 20만원, 시총은 최고 20조원으로 내다봤다.

같은 이유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 KCC(17%), 삼성카드(5%) 등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KCC의 주가는 지난 달 7일 50만원에서 현재 66만원대까지 올랐고 삼성카드는 이달 들어 4만원대를 회복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관련 과세특례가 내년 말 만료돼 삼성그룹이 그 전까지 계열사 간 지분 정리 등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봤다.

윤태호 연구원은 "삼성은 현 시점에서 지주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그러나 삼성의 부인에도 불구, 시장은 점진적인 지주 전환을 기정 사실화한 듯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날개없는 선풍기 8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날개 없는 선풍기 '다이슨 에어 플라이어'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가격은 64만8000원부터 74만8000원이다. /연합뉴스

정부·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보

3월 차단 건수 1년 만에 1000건 넘어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3월 피싱사이트 차단 실적은 1287건으로 전월(663건) 대비 94.1%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1~3월 누적 건수는 2433건으로 지난해 전체(7999건)의 30.4%에 달해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3월 적발된 피싱사이트 가운데 금융기관을 사칭한 케이스는 865건(67.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것은 411건(31.9%)이었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103.0%, 81.8% 급증한 것이다.

해킹 범죄 건수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3월 해킹사고 접수처리 건수는 1947건으로 2월(1654건)보다 17.7%, 1월(529건)보다는 2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월 두 달간 접수된 것만 도 지난해 전체(1만600건)의 3분의 1 수준에 이를 정도로 올해 들어 유난히 해킹사고가 잦았다.

KISA 측은 "최근 적발된 것은 단순 침입시도가 많지만 비정상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zen@

대기업 1분기 투자↑

전년보다 9% 증가 삼성 6조8천억원

30대 그룹의 지난 1분기 투자액이 20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가량 투자를 늘린 것이다. 상위 5대 그룹이 15조원으로 20% 가량 증가했고, 특히 삼성은 6조8000억원으로 50% 가까이 늘려 투자를 이끌었다.

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174개 상장사(금융사 제외)를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투자는 20조513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조8500억원보다 8.8% 늘었다.

공장 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이 16조4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13% 증가한 반면, 무형자산 취득은 2조500억원에서 1조9800억원으로 3.4% 감소했다.

그룹별로 삼성이 6조8300억원을 투자해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조6000억원보다 48.4%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반도체 설비에 3조3000억원, 디스플레이에 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6조2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체 투자의 91%를 차지했다.

2위는 SK로, 전년보다 47.5% 늘린 2조7900억원을 투자했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주도한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신제품 생산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에 나서며 전년 대비 70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3000억원을 투자했다. /김태균기자 ksgit@

북해도★노보리벳츠 온천 ●티웨이항공 탑승 3일
499,000▶6월 22,29일 ●치토세-노보리벳츠(1)-오타루-삿포로(1)-치토세

도쿄(시즈오카/하코네) 3일/4일
[3일] 549,000▶7월 3,10일
[4일] 699,000▶6월 23,24일
●시즈오카-도쿄(1)-시즈오카(1) ※ 상품별 일정상이 ●아시아나항공 탑승

남큐슈★전일정 온천욕 ●아시아나항공 탑승 3일
399,000▶6월 18,25일 ●미야자키(1)-기리시마-가고시마(1)-미야자키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강남점 1600-6963
신분당선 선정릉역 2번출구 뚜르드카페 내 위치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 내역 :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포함(단, 개별여행 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 상품 가격 외 별도지불 하셔야 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 '선택관광경비'나 '안내원 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상품의 행사는 (주)하나투어에서 주관합니다. ■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26004-1993-6(종로구청)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 / 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 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 ■숙소 : 2급호텔 이상

위례 열기, 아파트 찍고 상가·산업센터로

침체됐던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위례신도시의 청약열기가 아파트에 이어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주택·오피스텔 등으로 집중됐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2·26대책 발표로 다른 상품으로 옮겨간 것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일대에 공급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률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가는 분양 한 달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고,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가 역시 단기간에 분양을 마감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점포는 상가임에도 5000만원가량 웃돈이 붙기까지 했다. 현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5000만원 정도인 것과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올 들어 4월 말 분양된 '송파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 역시 선착순 청약에서 119개 점포에 총 1200여명이 몰리며 평균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위례 인근 문정지구에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작년 말부터 분양을 시작한 현대지식산업센터는 벌써 계약률이 80%를 넘어섰다.

분양 전인 지식산업센터에도 기업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 달에 분양 예정인 송파구 문정동 비즈니스파크 내 '문정역 테라타워'는 지난 2월 홍보관 오픈 이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문정역 테라타워 분양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의 선택 기준은 무엇보다 입주사의 편의성이 중요한데 3-1블록은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중 역과 거리가 가장 가까워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위례신도시의 경우 강남권 요지에 있어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데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왼쪽부터 현대카드 프로젝트로 달라진 봉평장, 장보기 특화카드 내놓은 하나은행,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현오석 부총리. /각 기관 제공

금융권, 전통시장 氣 살린다

현대카드 특화 프로젝트…하나은행은 장보기 카드

장기불황과 세월호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높이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 카드와 상품을 만드는 등 소비자의 눈길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채소는 초록색, 생선은 파란색으로 컬러체계를 도입한 천막과 대를 이어 장터를 지키는 상회, 60년째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등 이야기가 있는 전통장으로 꾸려진 이 프로젝트는 현대카드와 현대 캐피탈이 지난해 3월부터 준비한 것이다.

현대카드는 전통시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문구로 만들고 상인들의 실제 사진과 연락처를 함께 담아 간판과 명함으로 제작했다. 또 봉평장만의 특색을 부각할 수 있는 요리와 놀이주머니를 만드는 한편 품목별로 천막의 색을 달리하고 원산지와 가격을 표기할 수 있는 정보판도 설치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북을 개발하거나 전통장에서 사용시 혜택을 주는 카드도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전통시장과 시장 인근 골목상권에서 결제 시 최고 2%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메가마켓 체크카드'를 내놨다.

하나은행과 하나SK카드가 공동 개발한 '메가마켓 체크카드'는 '장보기'에 특화된 카드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가계경제를 지원한다. 특히 '장'서비스는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상권에서 사용 시 1만원 당 2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유도하고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추가 100만원 소득공제혜택까지 챙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지역 은행에서도 전통시장과 협력해 전통시장 살리기를 도모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장사하기에 바쁜 전통시장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에서부터 매출 증대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대행 판매 은행으로서 전국 168개 영업점을 통해 지폐형과 카드형(선불형 무기명)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연중 판매 중이다.

BS금융그룹 부산은행도 전통시장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중구 전통시장과 상점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무료로 지원해 종전 단말기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롯데百, '쿨비즈 패션으로 꽃중년' 8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꽃 중년 쿨비즈 패션쇼'가 열리고 있다. 중년층을 위한 쿨비즈 의상을 소개하기 위해 롯데백화점이 마련한 이벤트다. /연합뉴스

보험업계, "한국 월드컵 16강 확률 55%"

오는 13일 개막하는 브라질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은 55%로 전망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 확률은 55%, 8강 진출 확률은 18%, 4강 진출 확률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16강 진출에 성공한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당시의 전망 16강 48%, 8강 16%, 4강 6%와 비교해 더 긍정적인 예상이다.

이 같은 전망은 '16강 진출시 추첨을 통해 응모고객에게 상품 증정' 등 기업들이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할 때 활용된다. 다만 산출된 확률이 언제나 실제 경기 결과와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2002년 월드컵 4강 실적에 의해 요율이 상승하면서 16강 진출 확률 80%, 8강 진출 확률 30%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전기요금 폭탄' 막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법

찐순이 주부 경제학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크림은 어느새 여름철 잇 아이템이 됐다. 늘 '덥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다. 머지않아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여름철 '전력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전기절약을 실천한다면, 전력대란을 조금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아보자.

'전기먹는 하마' 중 하나가 TV와 셋톱박스다. 최근 TV가 대형화되면서 소비전력이 크게 증가했다.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을 조그만 자제해도 전력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TV 시청을 위한 필수기기로 자리잡은 셋톱박스는 다른 가전과 달리 대기전력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TV를 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셋톱박스의 코드를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컴퓨터에서도 전기를 줄일 수 있다. 컴퓨터의 전원 설정에서 모니터 끄기, 시스템 대기 모드 등 다양한 절전모드 기능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시디롬(CD-ROM)에 CD를 넣어두면 부팅과 탐색시 CD가 작동해 전기가 더 많이 소비된다. 컴퓨터에 USB를 꽂아두는 것도 전력 소비가 된다. 때문에 USB를 사용하지 않을 땐 뽑아두는 것이 좋다.

집안을 청소할 때 요긴나게 사용되는 청소기 역시 전력 소비량이 큰 기기다. 집안을 청소하기 전엔 반드시 청소기 청소부터 말끔하게 해야 한다. 청소기 필터를 청소하면 흡입력이 좋아져 청소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필터 청소만으로 청소기 흡입 속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어 10%의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하자. 식기세척기는 물과 전기를 함께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 크고,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족 수와 설거지 양을 고려해 적정 크기를 선택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득 찰 때만 돌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세탁기의 에너지 소비는 세탁물의 양보다는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탁물을 80% 가량 채워 세탁을 해도 세탁 효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탈수는 되도록 5분 이내로 짧게 해주고, 찬물로 세탁하는 게 좋다. 더운 물로 세탁을 하면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에너지로 소비된다. 세탁 옵션 중 '절약모드'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민지기자 minji@

하나은행, 'Let's Go 브라질 오! 필승 코리아 적금' 출시

월드컵 성적 따라 우대금리…대표팀 감독·선수 모델 전용통장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성적 결과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Let's Go 브라질 오! 필승 코리아 적금 2014'를 오는 17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개인만 가입할 수 있고, 최저 가입금액 1만원으로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월 단위로 고객이 정할 수 있다. 금리는 정액적립식 3년제 기준 연 3.4%이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시 연 0.1%, 8강 진출 시 연0.2%, 4강 진출 시 연 0.3%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최고 연 3.7%까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Let's Go 브라질 오! 필승 코리아 적금 2014' 출시를 기념해 홍명보 감독과 이청용, 구자철 등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를 모델로 한 전용통장을 한정판으로 제작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공식후원은행으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2000년부터 하나은행이 함께해 온 FA CUP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아우르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축구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07년부터 국내프로축구 명문구단인 FC서울 공식후원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K리그 올스타전, 홍명보 자선축구, 남아공 유소년 축구대회, 직장인 축구대회 및 각종 아마추어 축구대회 등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뿐 아니라 축구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02년 월드컵 4강, 2012년 올림픽 동메달의 감격과 열정을 기억하고 축구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하나은행이 2013년 한국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전 및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의 선전을 기원한다"며 "축구·골프·농구 등 스포츠 마케팅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스포츠와 연계한 금융상품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판매망 넓힌 우체국 알뜰폰 '글쎄…'

연내 읍면 500곳까지 늘려…가입자 증가로 이어질지 의문

우체국 알뜰폰의 유통망이 연말까지 3배가량 확대된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선 우체국 알뜰폰의 유통망 확대가 판매량 증대로 연결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전국 229개 점포에서 위탁판매 중인 알뜰폰을 10일부터 읍면 단위 우체국으로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장 확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1차적으로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350개까지 늘린 뒤 확대 효과를 살핀 후 연내 5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체국의 알뜰폰 수탁 판매는 그동안 알뜰폰 업계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판매에 본격 돌입한 우체국 알뜰폰은 첫날 666건을 시작으로 통신비 절감을 체험한 고객들의 입소문 속에 올해는 일평균 729건까지 가입자가 늘어났다.

이 같은 가입자 증가폭에 힘입어 지난달 14일 우체국 알뜰폰은 판매 7개월14일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우체국 알뜰폰은 가입자 해지율이 월 0.4%에 그쳐 이동통신사 가입자 해지율 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와 단말기를 구분해 상품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내게 맞는 요금제 찾기'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번 우체국 알뜰폰의 유통망 확대가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것이지 가입자 확대를 위한 목적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우체국을 통한 알뜰폰 판매가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어느정도 과도기가 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우체국 판매점 확대가 가입자 증대로 연결되기보다 고객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혜택 강화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229개 우체국 점포에서 위탁판매 중인 알뜰폰이 읍면 단위 우체국으로 유통망을 확대한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최근 이통3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단말기 출고가 인하 정책 등에 의한 견제도 우체국 알뜰폰 판매망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낮추는 요소다. 이통3사의 영업이 재개된 지난달 20일 이후 치열한 보조금, 출고가 인하 경쟁 속에 이통3사 일일 번호이동 건수는 한 때 7만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했다.

반면 알뜰폰은 5월 한 달간 7만7635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9만9867명) 대비 2만명 이상 순증 수가 줄어든 것. 이통3사 영업재개 이후 순증세가 한 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읍면 우체국으로의 알뜰폰 판매망 확대가 알뜰폰 업계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고객서비스(CS) 강화, 알뜰폰은 싸고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여름 방학 대목 잡아라!

온라인게임사 이색 마케팅

온라인 게임사들이 스포츠의 계절 여름을 맞아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찬스를 독특한 시도로 적극 살리겠다는 의지다.

엔트리브소프트는 국내 1위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와 최근 출시한 '슈퍼스타 베이스볼 카드'를 결합한 마케팅을 한다. 슈퍼스타 베이스볼 카드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승인한 국내 유일의 프로야구 선수 카드다. 프로야구 매니저에서는 슈퍼스타 베이스볼 카드팩을 구입하면 들어있는 아이템 카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스페셜 게임 아이템을 증정한다.

CJ E&M 넷마블은 캐주얼 축구게임 '차구차구'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아스타를 향해! 차구차구!'를 KBS 1TV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방영한다.

'아스타를 향해! 차구차구!'는 꼬마감독 강차구가 천재 스트라이커 메이르와 타이거 킹즈를 이끌며 축구대회 아스타컵 우승에 도전하는 성장 이야기를 그린 축구 애니메이션이다.

TV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카드, 축구용품, 출판, 문구 등 다양한 상품에도 차구차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넥슨은 '프로야구2K 14'에서 '오뚜기 진라면배 리그'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프로야구2K 14 게임 내에서 페넌트레이스로 진행되며 매주 결과에 따라 최대 100만 KP(게임머니)와 한정 아이템 '진라면 컨디션회복제' '진라면 류현진 패키지'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NHN블랙픽의 '풋볼데이'는 롯데푸드 '돼지바'와 제휴해 조별 16강 진출국을 예상하는 'My Final 16', 본선부터 8강까지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경기결과 예측!'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한국 축구 스타디움 유니폼 등 국가별 대표팀 유니폼, 고급 축구공, 게임머니까지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함께 펼친다.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는 KBSN 스포츠 방송 '아이러브베이스볼'에 게임의 로고와 각종 영상을 노출하는 한편 슬러거 이용자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하는 '투데이 슬러거'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KBSN 스포츠 채널에서 프로야구 생중계 중 앞-뒤-좌-우 동시 4분할 화면을 보며 타자에 대한 재미있는 퀴즈를 푸는 '슬러거 픽 퀴즈'도 공동 제작한다.

엔트리브소프트 관계자는 "올 여름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많아 스포츠 게임들의 제휴 마케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 같은 마케팅은 신규 유저 확보, 브랜드 인지도 제고뿐 아니라 두 업종의 윈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

"일본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

금융가 사람들

■ IBK투자증권 유육재 연구원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일본 사례를 통해 '저성장기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나 발전 과정, 인구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육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지난 1990년대 저성장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일본이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기 전 수준인 1980년대와 2000년대의 한국의 성장률이 비슷하다"며 "그러나 1990년 이후 일본과 2010년대 한국의 성장률 수준은 다소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 성장률이 10년을 주기로 보면, 하향 트렌드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본의 저성장기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산업을 검토하는 것이 향후 투자에 유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유 연구원은 저성장시대 장기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제약, 자동차, IT, 통신을 꼽았다.

그는 "과거 일본 사례에서 볼 때 제약, 자동차, IT, 통신 업종이 저성장기에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률을 보였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업종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들 업종의 주가 흐름 역시 긍정적이다. 제약과 자동차업종은 직각삼각형 패턴을 나타내며 횡보 후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IT역시 주봉상 장기깃발형 패턴을 나타내 장기적 횡보 이후 상승 가능성이 예상된다. 통신업종 역시 장기 반등형태인 상승 쐐기형 패턴을 보인다.

유 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은 장기적 측면의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과 다소 상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점 부근에서 숨고르기 과정을 겪고 있다"며 "아직까지 하락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아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돈 맡겨도 남는 거 없는데…"

저금리 기조 수시입출식 예금상품 '각광'
부동자금 요구불예금·MMDA으로 몰려

시중 부동자금이 수시입출금과 지급결제 기능에 예금자 보호까지 더한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3월 평균잔액은 12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110조2000억원)보다 16조4000억원(14.9%) 늘었다. 같은 기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MMDA)도 316조2000억원에서 338조5000억원으로 22조3000억원(7.1%) 증가했다.

이들 상품의 특징은 자금을 언제라도 쉽게 넣고 뺄 수 있고, 각종 대금 납부 등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점이다.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수시입출금식 상품이라도 지급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머니마켓펀드(MMF)는 같은 기간 3조4000억원(-6.1%),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MT)은 7조원(-13.0%)이 줄었다.

종합자산관리계정(CMA)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평균잔고(38조1000억원)에 큰 변화가 없었다. CM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지급결제가 되지만, 전체 잔고의 5.5% 가량인 종금형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요구불예금이나 MMDA 등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증가세는 저금리 기조로 자금을 굴릴 수익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으로 수시입출식 통장에 예치하는 자금이 많다"고 설명했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이 등장하면서 자금 이동을 더욱 촉발시켰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은행,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잔액 요건을 갖출 경우 연 2%대 금리를 적용하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별 잔액 중 300만원 초과분에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는 '마이심플통장'(SC은행)의 경우 지난해 2월 출시 후 누적 수신액이 3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일별 잔액에 따라 최고 2.5%를 적용하는 '참 착한 통장'(한국씨티은행)에는 지난 3월말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1조원이 모였다.

이에 반해 자금을 만기까지 은행에 묶어둬야 하는 정기 예·적금(만기 2년 미만)은 3월 기준 평균잔액이 876조4000억원으로 1년 전(876조6000억원)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굿초이스' 하세요 KT가 '고객 최우선 경영' 의지를 담은 '굿초이스'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일상에서 고객이 직접 '굿초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연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홍대 인근에서 진행된 '굿초이스 큐브' 이벤트 현장의 모습. /KT 제공

연휴 끝, 분양시장 '기지개'

6월 첫 주 징검다리 연휴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양시장이 다시 숨 가쁜 레이스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4곳, 당첨자 발표 12곳, 당첨자 계약 13곳, 견본주택 개관 9곳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LH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A18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26~59㎡, 전체 1890가구 규모다.

보증금은 면적에 따라 1400만~5600만원이고, 월임대료는 15만5000원부터 시작해 최대 38만원이다. 입주는 2015년 7월이다.

같은 날 세종 3-2생활권 C2-4블록 '스타힐타워2'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 '동명e다움'이 청약을 실시하고, 다음 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사랑으로 부영'의 청약일정이 잡혀 있다.

대방건설은 12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지구 B7-3·4블록 '디엠시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3~64㎡, 총 1281실로 구성된다. 이어 13일에는 대우건설이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양주신도시에서, 현대건설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감계지구에서 견본주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경남 창원시 자은3지구 B1블록 '중흥S-클래스' ▲대전 유성구 죽동 죽동지구 A2블록 '대원칸타빌' 견본주택이 같은 날 손님을 맞이한다.

또 14일에는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A14블록 '호반베르디움 2차' ▲대구 달성군 옥포보금자리주택지구 C-1블록 '옥포 대성베르힐'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부부는 파산도 일심동체'

부부는 말처럼 '일심동체(一心同體)'이기 쉽지 않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때 보면 일심동체임을 실감한다. 대부분 남편 주도의 사업이나 무리한 주택구입으로 부인까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태반이다. 남편이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쓰다 부인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고 도무지 갚을 능력이 안돼 부부가 같이 신청하러 온다.

50대 후반의 A씨는 사업실패로 부채 규모가 부부 합해 3억 원이 넘었다. A씨가 다시 취업을 할 전망은 별로 없다. 부인은 전업주부로 남편 탓에 빚을 진 것이다. 부부는 나란히 파산 신청을 했다.

그들은 집을 처분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셋집으로 옮겼다. 그래도 셋집이나마 얻을 돈이 있어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부부의 긍정적인 생각이 좋아 보였다.

어느 30대 부부는 집을 무리하게 사는 바람에 남편이 5000만원, 부인은 4000여만 원의 빚을 졌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해 다달이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기로 했다.

부인은 아이들 둘을 돌보느라 정규직으로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매달 50여만 원. 1인 생계비 60만 원에 미달하는 것이다. 30대 파산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 부인은 양육 여건상 월 소득을 높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남편은 개인회생, 부인은 파산으로 각각 신청한 것이다.

세간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각자 서로 다른 주머니를 꿰차고 재산다툼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회생 파산 신청 창구에서 보면 부부가 같이 뭔가 일어서보려고 빚을 져서 들어온 안타깝지만 애틋한 사연들도 적지 않다.

www.lawshelp.kr

월드컵 중계에 바라는 것

뉴스룸에서
유 순 호
<연예스포츠차장>

2014 브라질 월드컵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송사들의 중계 전쟁도 불을 뿜고 있다.

SBS가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완벽한 호흡을 맞춘 차범근 해설위원과 배성재 캐스터 콤비로 우위를 점했다. MBC는 김성주 전 아나운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과 2002년의 영광을 함께 일궜던 안정환·송종국을 중계석에 앉혔다. KBS는 전 국가대표 이영표와 조우종 아나운서로 시청률 역전극을 준비하고 있다.

중계 경쟁은 이미 예능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밤-아빠 어디가'의 출연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MBC 중계진은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 화제몰이를 시도했다.

조우종 아나운서는 '풀하우스' '인간의 조건' '우리동네 예체능'에, 배성재 아나운서는 '정글의 법칙 인 브라질'에 출연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이처럼 축구 중계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900억원에 가까운 중계권료를 지불했고, 이를 광고 수익으로 만회해야 하는 사운이 걸린 과제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공정성 논란으로 타격을 입은 채널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월드컵이 돌파구다.

친근한 목소리로 전하는 중계는 축구에 열광하는 남성 시청자와 월드컵 때마다 남편을 뺏겨 '월드컵 과부' 신세가 되는 여성 시청자를 포함한 남녀노소 모두를 TV 앞으로 불러들이는 데 더 없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예능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중계진이 지나치게 방송사 경영진의 논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청률 띄우기식 중계에 내몰리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축구는 국민 스포츠이면서 밤새 유럽 리그를 시청하고 해외 축구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헤치는 마니아들이 가장 넘쳐나는 종목이다. 아무리 대중적 인지도가 높더라도 중계진이 갖춰야 할 기본은 전문가적인 지식과 현지에서만 접할 수 있는 넓은 시야, 빠른 정보 전달 능력이다.

우리는 국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면서 남는 건 중계진의 고함소리와 시시껄렁한 어록뿐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경기를 바라보고 냉철하게 분석하는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린 채 말이다.

캐스터와 해설자는 소리지르며 응원하고 웃기기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앉은 술자리에도 많다.

이제는 민생안정에 올인해야 한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세월호 참사가 아직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무엇보다 민심의 소재를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준 점이다. 여당에게는 '책임'을 묻고 야당에게는 '경고'를 내렸다. 광역 단체장 17곳 가운데 여당이 8곳, 야당이 9곳을 이겼다. 단순히 보면 야당이 신승했다. 그러나 기초 단체장은 여당이 124대 72로 우세하다. 따라서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 가리기도 어렵다.

국민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과제를 부여한 셈이다. 바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표심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해야 한다. 가뜩이나 저성장의 그늘 속에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판에 '세월호 참사'로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가 냉각된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할 정도다. 특히 높은 실업률이 개선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해도 약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원화 값이 올라가 수출 시장도 녹록치 않다. 일본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국민소득도 2년래 최저수준인 0.5% 증가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가 실시된 2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지난해말 1000조원을 넘어선 이래 올 들어서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일반 서민들의 구매력이 살아날 기미가 없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한다. 우선 조각수준의 개각을 서둘러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다. 우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을 일괄 지명해 공백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도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광의의 국정동반자 자세가 되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절제된 입장에서 정국을 운영해야 실추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힘겨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기여하자면 역지사지의 입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성숙된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선거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포토프리즘 분수대 찾은 학생들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를 찾은 학생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다. 긴 휴일의 마지막 날 이전보다 시원한 날씨를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손진영기자 son@

불친절한 일요 예능

기자수첩
전 효 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일요일 예능은 시청자에게 불친절하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지상파 3사의 꼼수 편성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송시간 협의가 필요하다.

KBS2 '해피선데이', SBS '일요일이 좋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각각 4시간여 동안 방송한다. 5분, 10분 빨라지더니 지난주엔 오후 4시에 프로그램이 시작했다. 애초 오후 4시20분에서 4시40분 사이에 시작한 데 비하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발단은 KBS였다.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인기를 얻자 방송 시간을 앞당겼다. SBS와 MBC는 방송 편성과 시간 협의를 위해 KBS에 만남을 제안했다. 그러나 KBS는 "편성은 방송사의 권리"라며 제안을 거절했고 협상은 무산됐다.

꼼수 편성은 제작진과 시청자에게 피해를 준다.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제작진은 방송 시간을 채우기 위한 부담을 떠안는다. 작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청자는 탄력 잃은 예능이 즐겁지 않다. 특히 일요 예능 소재는 육아·리얼로 한정된다. 극적 편집을 최소화하는 장르를 2시간 동안 봐야 하는 시청자는 피곤하다. 한 예능 CP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작 중"이라며 "제작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고충을 말했다.

시청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시간 때우는 예능이 아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상파 3사는 시청자를 위해 대화해야 한다.

공기방울 글씨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인어공주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공기방울이 되어 하늘로 떠오른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진 잔해의 거품이 아니다. 자신을 배신한 왕자를 용서하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한 채,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기운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는 시작이었다. 슬프지만 착한 사랑의 여진이 마음을 아련하게 한다.

"손가락이 열 개인 것은/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함민복 시인의 <성선설>이라는 제목의 시다. 생명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 연결하고,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진화된 생명의 조직과 능력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생명과학이 주목하는 바이다. 물론 꼭 열 개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 마음이 담겨지게 된다는 대목이다.

인간의 뇌는 우리의 마음이 등불을 켜고 찾아나서는 산맥과 계곡이며 강과 바다이다. 기억의 창고를 벗어나면 보이는 뇌 속의 풍경은 대부분 아직도 우리에게 발을 들여놓지 않은 미답(未踏)의 세계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지도가 펼쳐져 있다. 그 뇌 안에서 마음이 밖으로 뿜어낸 공기 속에는, 바로 그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섞여 움직이면서 빛을 낸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쓴, 요즈음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함민복의 시 <숨 쉬기도 미안한 사월>의 한 대목이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가녀린 손가락들/나는 괜찮다고 바깥세상을 안심시켜 주던/가족들 목소리 여운으로 남은/핸드폰을 다급히 품고/물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보았을/공기방울 글씨/엄마/아빠/사랑해!/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기방울에는 무수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역시 인어공주의 공기방울처럼 허무하게 소멸된 생명의 포말(泡沫)이 결코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입었던 열 달의 망각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마침내 열 손가락이 되었듯이, 바로 그 손가락으로 남긴 글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속으로 들여 마셔진다. 죽어간 아이들이 세상에 남긴 눈에 보이지 않는 편지들이다. "사랑해!" 그렇게 쓰인 이 글자의 힘으로 우리의 매일은 소중하고 아름다워진다. 그건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활자다. 미안함을 넘어서는 내일을 기도하는.

진화하는 신개념 인대 및 관절 DNA 주사!

유명 배우 S양 아버지 S씨는 평소 우측 팔꿈치 내측 건초염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자꾸 재발해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자 S양과 같은 방송에 출현 중인 가수 K씨와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김상욱 원장은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으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치료 받아 유명해진 강남초이스병원만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로 치료를 시행했다. 또 김 원장은 부종 감소 및 염증 치료를 위해 인대 치료 주사를 병행했으며 치료 후 S씨의 통증은 호전됐다.

이처럼 3년 전부터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해온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또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으며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대질환, 건초염 및 관절염 등 10여분이면 치료 끝!!

이와 함께 S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의 핵심 치료인 도수운동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받았다. 현재 S씨는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실시한다. 더욱이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진료를 시행한다. 특히 병원은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체계화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 인근에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치료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설립해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1800-3800 /황재용기자

한국코와, '카베진코와S정' 국내 출시

양배추의 'MMSC'가 위장병에 효과…일본에서도 인기

한국코와주식회사가 양배추 유래 성분인 'MMSC(메틸메티오닌설포늄염화물)'가 함유된 위장약 '카베진코와S정'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

카베진코와S정은 만성 위염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급성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 등을 개선하는 치료제로 일본코와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종합위장약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국민 위장약'으로 불릴 만큼 검증이 된 인기 제품이다.

제품의 주성분인 MMSC는 양배추 추출물 중 항소화성 궤양 인자로 상처난 위 점막을 수복하고 손상된 위 표면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 아울러 MMSC 성분이 위벽의 신진대사를 높여줘 약해진 위벽 강화와 위 운동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 제품에 함유된 창출과 당약 생약 성분은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항균 작용을 하며 제산제와 소화 효소가 위산 자극을 완화하고 탄수화물 및 단백질 등의 소화 작용을 촉진한다.

한국코와주식회사 관계자는 "속쓰림·위통·울렁거림 등 위장병 증상을 자주 겪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나 제산제 등을 복용하거나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카베진코와S정은 MMSC를 일반의약품 최대 용량으로 배합해 위점막 수복 효능을 높였으며 반복적인 통증을 개선하는 데 좋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위가 약해 속쓰림이나 통증이 잦은 경우, 혹은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로 인한 거북함·체함·구역질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카베진코와S정은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은 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대학병원, 10일 다양한 건강강좌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강의

대학병원들이 6월을 맞아 다양한 건강강좌를 준비했다.

먼저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10일 충무아트홀에서 '말 못할 고민,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을 주제로 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여정균 서울백병원 비뇨기과 교수가 강의를 맡았으며 강의에 앞서 참가자들의 건강 상담도 한다.

또 이대목동병원과 중앙대병원은 이날 각 병원에서 '스마트폰 뺏어? 말아?'를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과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의대도 같은 날 '생활습관을 통한 건강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민건강나눔포럼'을 연다.

포럼은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미래 지향적인 건강 개념을 정립하고 올바른 건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재용기자

강동경희대병원, '장기기증 캠페인'

강동경희대병원(원장 곽영태) 장기이식센터가 개원 8주년을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장기기증 생명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기기증 희망 서약 동참을 통해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병원은 9일부터 12일까지 병원 로비에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희망서약 천사(1004명)'를 모집한다. 또 11일에는 인디밴드 '라이노 어쿠스틱'의 감성 공연이 펼쳐지고 '배우 엄태웅과 함께하는 장기기증 희망서약' 등의 이벤트도 준비된다.

/황재용기자

폭스바겐, 수입차시장 선두 노린다

지난해 2만5649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39.4%의 성장률을 기록한 폭스바겐코리아는 올해 4월까지 9668대를 판매했다. 덕분에 BMW, 메르세데스 벤츠를 바짝 쫓으며 3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판매 1위와 더불어 20대와 30대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수입차 핵심 시장으로 손꼽히는 3000만원대 모델 판매에서는 6648대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인기비결은 해치백부터 세단, SUV, 쿠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는 탄탄한 모델 라인업에 있다.

골프, 강력한 디자인·혁신 기술로 첨병 역할

여기에 오는 5월 골프 1.4 TSI 블루모션 출시해 핵심차종인 골프의 가솔린 라인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GTI, GTD 등 고성능 핫 해치 모델을 연달아 출시해 소형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수입차 성장을 이끌어온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핫 해치'의 원조, 골프 GTI

골프 GTI는 1976년 '핫 해치'라는 고성능 콤팩트카 세그먼트를 정착시킨 모델이다. 7세대 신형 골프 GTI는 실내, 외 디자인, 파워트레인 등이 새롭게 설계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이미지로 재탄생했다. 특히 폭스바겐의 차세대 생산전략인 MQB(가로배치엔진용 생산모듈) 플랫폼을 통해 구형보다 55kg 감량했고,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Progressive Steering)이 탑재돼 역동적인 운전 재미를 선사한다.

신형 골프 GTI는 스포츠 서스펜션을 적용해 일반 골프보다 약 15mm가 낮아졌다. 허니컴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로 지르는 레드&크롬 스트립은 바이제논 헤드라이트까지 연결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을 완성했다. GTI의 '토네이도 라인'은 시각적인 무게 중심을 낮추고 더욱 견고한 인상을 준다. 이 밖에도 3개의 블랙 에어로 다이내믹 슬랫과 블랙 스플리터, LED 전방 안개등, 붉은색 전·후륜 브레이크 캘리퍼와 18인치 오스틴 알로이 휠이 적용된다. 후면은 다크 레드 LED 테일램프와 에어로 다이내믹 플랩이 적용된 리어 스포일러, 블랙 컬러 디퓨저, 듀얼 크롬 테일 파이프 등으로 파워풀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신형 골프 GTI에는 차세대 1984cc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2.0 TSI)과 듀얼 클러치 방식의 6단 DSG 변속기가 조합된다. 최고출력 211마력에 1450~4000rpm의 실용영역에서 최대토크 35.7kg·m를 낸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8초, 최고 속도는 210km/h다. 복합연비는 11.5 km/l(도심 10.0/고속 13.9)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Progressive Steering)과 더욱 진화된 XDS+(전자식 디퍼런셜 록) 시스템도 탑재해 핸들링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에코, 스포츠, 노멀, 인디비주얼 등의 주행모드를 지원하는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도 추가됐다. 가격은 4350만원이다.

◆경제성 더한 골프 GTD

'그란 투리스모 디젤(Gran Turismo Diesel)'의 약자인 GTD는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갖춘 디젤 스포티 퍼포먼스 카다. 이 세그먼트에서 30여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모델은 GTD가 유일하다. MQB 플랫폼으로 새롭게 설계된 신형 골프 GTD는 역사상 가장 빠르면서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외관은 7세대 골프 GTI와 유사하다. 그러나 GTI의 레드&크롬 스트립 대신 그레이&크롬 스트립을 사용해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강조했다. 또한 17인치 쿠리티바 알로이 휠로 독창성을 강조했다. 후면에는 스모크 LED 리어 라이트, 듀얼 크롬 테일파이프, 루프 에지 스포일러가 장착돼 있다.

블랙 헤드라이너와 블랙 필러 커버,화이트 백그라운드 조명은 스포티함을 더욱 강조한다. 또한 티타늄 블랙 색상의 비엔나 가죽 스포츠 시트와 3-메탈 스포크와 유광의 검정색 트림, D컷 멀티펑션 가죽 스티어링 휠,디스커버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차세대 4기통 TDI 엔진을 장착한 신형 골프 GTD는 구형보다 14마력 증가한 184마력에 달한다. 38.7kg·m에 이르는 최대토크는 1750~3250rpm 범위에서 유지된다. 0→100km/h 가속시간은 7.5초, 최고 속도는 228km/h다. 듀얼 클러치 방식의 6단 DSG 변속기와 더불어 GTD 최초로 블루모션 테크놀로지가 접목돼 리터당 16.1km의 복합연비(도심 14.4/고속 18.8)로 1등급을 달성했다.

이와 더불어 GTI와 동일하게 일반 골프보다 차체가 15mm 낮아진 스포츠 서스펜션과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XDS+ 시스템,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 등이 탑재된다. 가격은 4240만원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아웃도어 라이프의 은근한 매력 즐긴다

▲한 줄 평가: 파워와 연비 모두 향상됐다. 값 대비 가치가 높다. ▲평점: ★★★★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BMW	320d	2,530	2,780	3,180	3,620	-
	520d	2,400	3,490	3,840	4,420	4,620
	X5	4,200	4,800	5,370	6,900	-
벤츠	C클래스	2,840	2,910	3,000	3,360	3,940
	E클래스	3,400	3,820	4,080	4,480	4,830
아우디	A4	2,360	2,540	2,870	3,180	3,670
	Q5	3,460	3,930	4,110	4,760	5,360
폭스바겐	골프6세대	1,430	1,860	2,150	2,250	-
	티구안	2,370	2,640	2,860	3,350	3,700
	CC	2,180	2,530	2,970	3,200	3,640
	파사트	1,760	2,200	2,510	3,130	3,42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볼보 XC60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이들에게 SUV만큼 즐거운 차도 없다. 오늘 소개하는 볼보 XC60은 특출하지는 않지만 은근한 매력을 풍기는 SUV다. 투박한 정통 SUV가 아니어서 도심 속에서도 잘 어울리는 '크로스오버 비클(CUV)' 같은 차이기도 하다.

XC60의 외관은 지난해 8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최근에는 연비와 파워를 개선한 '드라이브-이(DRIVE-E)' 파워트레인으로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했다. 기존 주력 모델이었던 D5는 직렬 5기통 2.4ℓ 엔진으로 215마력을 내는 데 비해, 새 엔진은 직렬 4기통 2.0ℓ D4 엔진의 최고출력을 163마력에서 181마력으로 높였다. 그러나 동급 최고수준인 최대토크는 그대로 뒀다.

볼보가 2.0ℓ 디젤 엔진에 주력하는 이유는 작은 배기량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연료소모는 늘어나게 마련이고, 엔진은 무거워진다. 볼보는 지능형 연료분사 기술 'i-ART(Intelligent Accuracy Refinement Technologies)'로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이뤄냈다. 'i-ART'는 각 인젝터마다 설치된 인텔리전트 칩이 연료분사압력을 모니터링해 각 연소행정마다 최적의 연료량이 분사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정교해진 엔진은 공회전부터 뛰어난 정숙성을 보여준다. 발진 가속과 중저속 가속도 가뿐하다. 새 엔진과 궁합을 맞춘 8단 자동변속기는 기존 6단 변속기보다 연결감이 매끄럽고 엔진회전수를 낮게 활용해 연료를 절약한다. 40.8kg·m의 최대토크는 1750~2500rpm 구간에서 발휘된다. 1500~3000rpm에서 최대토크가 나오는 2.4 엔진보다 약간 좁은 범위다.

최대토크는 2.4 엔진보다 낮지만, 변속단수가 더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순간 가속력을 활용하기가 좋다. 또한 정속주행에서는 엔진회전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좀 더 정숙한 달리기를 보여준다.

기존 볼보 모델들은 뛰어난 파워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BMW 모델보다 연비가 열세였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6단 변속기였는데, 이번에 8단 변속기로 그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XC60의 도심 연비는 13.4km/ℓ, 고속도로 연비는 17.1km/ℓ로, 2.4 엔진을 얹은 D5 모델(도심 10.9, 고속도로 14.8km/ℓ)에 비해 대폭 향상됐다.

XC60은 넓은 실내공간과 적재공간을 갖춰 레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가격은 5720만원으로 여타 수입 SUV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도심과 야외를 자주 오가는 이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은 차다. /임의택기자

단, 1회 섭취로 1일후 시들한 男性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
파워엠
프리미엄골드
고급형 신제품 출시
力
자신있게3일
무료체험
효과없을시
환불!
한의사 한 형 희

판교서 '바비큐 프로모션' 한마당

코트야드 메리어트, 뷔페와 함께 생맥주 제공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가 여름을 맞아 8월 31일까지 '모모카페 야외 테라스 바비큐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점심 또는 저녁 뷔페 메뉴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육류와 해산물 바비큐를 즐길 수 있으며 생맥주도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또 모모카페의 야외 테라스에서 진행돼 판교 테크노밸리의 시원한 전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호텔 마케팅 담당자는 "라이브 카빙과 라이브 누들 스테이션, 한식 코너 등의 뷔페 메뉴와 더불어 셰프가 다양한 바비큐를 즉석에서 구워 제공한다"며 "야외 테라스에서 가족, 동료들과 바비큐를 즐기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31)8060-2150 /황재용기자

여수 찾은 중국관광객 최근 여수엑스포 디지털갤러리에서 열린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 방한 단체 갈라디너'에서 3000명의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만찬을 즐기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무더위 날릴 짜릿함 여기서…

오션월드, 야외존 오픈…다음달 11일까지 파격 할인 혜택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가 새롭게 리뉴얼된 어트랙션들과 함께 오션월드 야외존을 전면 오픈했다. 또 오션월드는 새로운 즐길거리와 파격 할인 이벤트를 통해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준비를 마쳤다.

◆시설물 리뉴얼 편의시설 개선

먼저 오션월드는 '슈퍼 익스트림 리버'를 리뉴얼해 오픈했다. 총 4개의 초대형 수문에서 동시에 100톤의 물량이 쏟아지며 높은 파도와 강력한 급류로 짜릿한 래프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오션월드는 프라이빗 공간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카바나'를 새롭게 선보였으며 단조로운 풀 형태의 동굴탕을 사계절 '노천 이벤트탕'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온탕1개와 이벤트탕 1개로 구성된 '파라오스파'는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디자인과 조형물로 꾸며져 마치 이집트로 여행을 떠난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울러 더 빠른 발권과 접근을 위한 온라인 매표소가 신축됐으며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해 '키즈헬퍼 서비스'와 '미아방지 띠지 데스크'도 운영된다.

또 오션월드는 스마트폰에서 대명리조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전용 상품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수도권 전 지역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파격 할인 이벤트로 무더위 타파!

오션월드는 리뉴얼 개장을 기념해 다음달 11일까지 학생, 생일자, 투숙객, 지역주민 특가 판매와 현장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월에 생일을 맞은 고객(이용일 기준)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1인당 일~금요일까지는 2만7000원, 토요일은 3만3000원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중·고·대학(원)생도 학생증 확인만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션월드 인근 13개 지역의 주민도 할인된 가격으로 오션월드를 이용할 수 있다.

오션월드는 신용카드 할인도 보다 확대했으며 투숙객 특가와 회원 동반 특가도 마련했다. 또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고객도 다채로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션월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인 손연재를 광고모델로 선정해 최근 오션월드와 스튜디오에서 오션월드 현장 CF 촬영과 스틸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 '할인·기프트 행사'

서울·부산 등 11개 호텔에서 8월 31일까지

서울·부산·대구 등에 위치한 11개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이 여름을 맞아 '15% 할인 행사 및 썸머 기프트 행사'를 진행한다.

예약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숙박은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아코르 호텔의 무료 글로벌 로열티 프로그램인 '르 클럽 아코르 호텔스'에 가입한 회원 및 신규 회원에게는 추가 5% 할인 혜택과 르 클럽 스크래치 카드, 무료 조식 및 다양한 썸머 기프트가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호텔 홈페이지(www.accorhotel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르 클럽 아코르 호텔스 회원은 카드 한 장으로 전세계 92개국 2700개의 아코르 호텔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문의: 00798)8521-2018 /황재용기자

물리아 발리 '플러스 1박 프로모션'

30일까지 예약…솔레일 레스토랑 스페셜 디너도 제공

인도네시아 발리의 대표적 휴양지인 누사 두아에 있는 럭셔리 호텔&리조트 물리아 발리가 '플러스 1박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스위트 룸으로 구성된 더 물리아와 허니무너에게 인기가 높은 물리아 빌라를 3박 예약하면 1박이 무료로 추가되는 이벤트로 오는 30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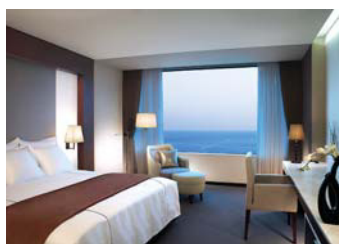
또 호텔은 1박 추가와 함께 이탈리아 셰프의 엄선된 코스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솔레일 레스토랑의 스페셜 디너도 특전으로 제공한다.

물리아 발리는 세계 리딩 호텔에 선정된 올 스위트 부띠크 호텔인 더 물리아와 최고급 서비스와 품격을 갖춘 물리아 빌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물리아 리조트 세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황재용기자

싱가포르서 여행과 쇼핑을 동시에

싱가포르에서 관광뿐 아니라 쇼핑까지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싱가포르관광청은 다음달 27일까지 쇼핑 및 라이프스타일 이벤트인 '싱가포르 대세일(Great Singapore Sale)'이 싱가포르 전역에서 펼쳐진다고 최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쇼핑몰은 물론 레스토랑, 호텔, 스파 등에서도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올해는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행운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또 대세일 기간에는 '싱가포르 음식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개최돼 싱가포르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수입 제품의 경연…"12일 코엑스서 만나요"

2014 IGF 40여개국 100여사 참가 이벤트 다양

2014 수입상품전시회(IGF 2014)가 오는 12~14일 3일간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된다.

한국수입협회(회장 신태용)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주한 각국대사관 등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대만·핀란드 등 40여개국 100여 업체가 참가해 각국의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전시는 해외의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고, 참가 해외기업과 국내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대 최다 참가국인 대만(10개 업체)은 완구·DVD box·선물용품·컴퓨터 가방·화장품 용기·신발·공예품·의류·낚시용품·주방용품·문구류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폴란드는 건강음료 아로니아와 도자기 그릇·화장품을, 주한 케냐 대사관은 각종 토속 목공예품을,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은 새우·바나나·커피·카카오와 섬유 제품을, 주한 체코 대사관은 크리스털 그릇과 인테리어 용품, 맥주를 소개한다.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건강음료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카카오·커피·초콜릿을,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은 카펫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과 스리랑카 대사관은 의류와 공예품 등을 내놓는다.

지난해 열린 '2013 수입상품전시회' 한 참가국의 부스 모습. /한국수입협회 제공

개막일인 12일 오전에는 120여명의 수입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CEO아카데미가 열린다.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는 '한중 통상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해외 우수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출품업체와 바이어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비롯해 무역정책 및 시장전망 설명회 ▲FTA 설명회 ▲문화 행사 ▲수입업 창업강좌 등 다양한 세미나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거래선을 발굴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첫날 오후에는 각국 대사관 상무관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정책 및 시장전망설명회'가 열린다. 전시회에 참가한 대사관 중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Marcelo Pazos Hernandez 상무관과 이번에 새로 개소한 미국 미네소타주정부 사무소에서는 한국시장 진출 및 수출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김남규 과장이 한국무역의 최근 동향과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마지막 날 진행될 '수입업 창업강좌'는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전 참가를 신청했다. 이외에도 참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콜라보, 브랜딩 넘어 문화·예술로

오르세·뉴욕 현대 미술관 등 협업으로 브랜드 가치↑
디자이너 발굴부터 한글 프로젝트까지 '매출 효자'

마케팅의 한 부분에서 콜라보레이션은 지명도가 높은 둘 이상의 브랜드가 손잡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소비자를 공략하는 기법을 말한다.

브랜드가 서로 협력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고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 간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소비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패션 업계에서는 디자이너 간의 공동작업을 일컫는 말로 주로 쓰였다.

콜라보레이션은 오랫동안 쌓아 놓은 고정적인 브랜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더한 이색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특성때문에 소비자들의 소유심리와 소비욕구를 자극해 단기적인 매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브랜드 마니아 층에게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간의 콜라보레이션뿐만 아니라 브랜드 간, 업종간, 산업 간 등 경계를 두지 않고 예술적인 감각을 더한 제품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품 출시와 매출 증대의 목적을 벗어나 의미있는 활동에 가치를 둔 작업도 있어 눈에 띈다.

◆패션에 예술을 입히다

루이까또즈(사진 아래)는 오르세 미술관전 공식 후원과 함께 프랑스 인상파 화가 앙리 에드몽 크로스와 앙리 루소의 회화 작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리미티드 에디션 오르세 라인(Orsay Line)을 최근 선보였다.

오르세 라인 듀엣백은 '요정들의 추방', '뱀을 부리는 주술사' 회화에서 영감을 받은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10년 전부터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을 진행해온 콜라보레이션계의 강자 유니클로(위)는 최근 '패션과 아트가 만나는 곳'을 콘셉트로 탄생한 서프라이즈 뉴욕(SPRZ NY) 프로젝트 컬렉션을 선보였다.

◆협업 '방송·디자이너·소비자'

신진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는 홈쇼핑 방송이나 각종 서바이벌 방송 프로그램도 콜라보레이션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독일 명품 브랜드 MCM은 스토리온 채널의 아티스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트스타 코리아'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패션과 아트의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변화의 태동 '콜라보레이션'

최근 국내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한글 티셔츠 한정판을 출시하며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베이직하우스의 입는 한글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한글이 콘텐츠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주로 '관'의 주도로 진행됐던 사업이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개하게 됐다고 브랜드 관계자는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강강술래,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 남기면 50명에게 경품 증정
보양식 한우곰탕 등 인기상품 3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기원하며 국민들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6월 한달 간 진행한다.

강강술래 홈페이지(sullai.com)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lai)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총 50명을 선정해 흑임자한돈너비아니(1명·2세트)를 증정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5000만 응원캠페인'을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이른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의 원기회복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국산 돼지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 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10봉(50g) 2만5200원 등 인기상품도 30% 할인가로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온 가족이 함께 문화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내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 전시관에서 열리는 '판타지 제왕의 귀환 웨타 워크숍(WETA WORKSHOP)' 티켓 증정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정영일기자 prms@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참전 유공자 보청기 지원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최근 '노병에게 희망을' 보청기 기증식을 체결했다.

기증식에 따라 재단은 서울지방보훈청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국가보훈청 산하 12개 지방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해 참전 용사들을 위한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더 확대된 국가유공자 후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2010년부터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02)787-2071 /황재용기자

난 그저 광대일 뿐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열연한 조진웅

조진웅(37)은 요즘 충무로에서 가장 바쁜 배우 중 한 명이다. 칸 초청작 '끝까지 간다'를 내놓자 마자 올 여름 '군도: 민란의 시대' '명량: 회오리바다' 등의 대작을 줄줄이 선보인다. 고된 일정 속에서도 여전히 듬직한 체구를 자랑하는 그는 "술 힘으로 버텼다"면서 웃었다.

◆ 재미있어서 출연한 '끝까지 간다'

개봉 전 흥행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극찬을 받으며 관객몰이 중인 '끝까지 간다'에 대해 조진웅은 "조마조마 했는데 평이 좋아 다행"이라고 말문을 텄다.

영화는 어머니의 장례식 날에 실수로 저지른 뺑소니 교통사고를 은폐하려는 형사 고건수(이선균)가 정체불명 목격자의 등장으로 사건이 건잡을 수 없이 커져가자 위기에 몰리는 이야기를 그렸다. 조진웅은 극중 목격자인 박창민 역할을 맡았다.

비록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지만 존재감은 강렬했다. 조진웅은 비리 경찰마저 살 떨리게 하는 살벌한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이선균과 몸을 엉키며 처절하게(?) 치고 받는 액션신은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했다.

"작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재미에요. 그 다음으로 내 캐릭터가 어떻게 숨쉴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면 감독을 만나고 어떤 배우들이 출연하냐고 물어요. 이번 영화는 시나리오는 물론 작업 과정도 재미있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많은 의견을 나누며 작업했죠. 흔치 않은 경험이었어요."

이선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케미가 너무 좋았다. 형을 한 명 얻은 것 같다"면서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기 바빴다. "사람들이 까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람 못 챙겨서 안달인 사람이다. 당시 결혼을 앞둔 내게 조언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그런 이선균을 사정 없이 때리는 액션신을 찍을 때 심경이 어땠느냐고 묻자 그 때가 생각난 듯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육중한 몸의 제가 워커를 신고 발로 차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못 참겠던지 때린 데만 때리지 말고 다른 곳을 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하하하"

◆ '군도' '명량' 등 차기작 대기

정작 '끝까지 간다'를 찍을 시기에 액션신보다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다. 조진웅은 "'명량'과 촬영 시기가 겹쳐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가발에 얽힌 웃지 못할 일화를 털어놨다.

"'명량'에서 일본 장수 역을 맡아서 머리를 밀어야 했어요. '끝까지 간다' 촬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발을 맞춰야 했죠. 가발을 핀으로 머리에 고정시키고 촬영을 하는데 그 때마다 누가 제 머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두 시간이 지나면 혈압이 치솟는 것 같았어요."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자 "여러 작품의 촬영이 한꺼번에 몰릴 줄 몰랐다. 버티기 위해서 열심히 술을 마셨다. 맨 정신에는 해결 못 한다"고 겸손하게 손사레를 쳤다. 그러나 이내 "실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술 자리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를 이제 선보일 일만 남았지만 한 숨 돌릴 타이밍은 아니다. 또 다른 차기작 '허삼관 매혈기' '우리는 형제입니다' 출연을 결정해 남은 올해도 바쁘게 보낼 전망이다.

그러나 조진웅은 다작을 해도 자신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지 않는다. "연극배우 시절에 과한 분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관객이 공연을 보고 돌아가면서 저를 못 알아봤어요. 지금도 배우들과 함께 걸어가면 잘 몰라 봐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전 광대가 되고 싶거든요. 제가 말하는 광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광대죠."

이선균 때릴 때 괴로워
가발 쓰는 게 가장 고생
관객이 날 몰라 봤으면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드라마가 온다!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
코믹 오피스 활극
18세 본부장님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6월 16일 (월) | 밤 11시 | tvN 첫방송
서인국 | 이하나 | 이수혁 | 이열음 연출 유제원 | 극본 양희승 조성희

싸이 신곡 '행오버' 뮤직비디오 일부 첫 공개

싸이 '행오버' 예고편 전 세계 들썩

월드스타 싸이의 컴백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들썩이고 있다.

싸이의 신곡 '행오버'의 뮤직비디오 일부 영상이 공개 이틀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했다.

8일 오전 10시 기준 싸이의 '행오버' 뮤직비디오 일부가 포함된 미국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게임 나이트'의 예고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18만뷰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행오버' 뮤직비디오 10초 가량을 담은 토크쇼 예고 영상이 싸이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처음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숙취'라는 뜻을 가진 노래 제목처럼 뮤직비디오는 한국의 음주문화를 재치 있게 그려낸다. 싸이와 스눕독이 한국 스타일로 '소주잔 돌려마시기'를 하는 모습이 코믹하게 담겼다. 이외에도 한국의 사우나, 편의점, 당구장, 노래방 등이 소개돼 한국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싸이는 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토크쇼에서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이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아이튠즈를 통해 음원을 독점 발매한다.

앞서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사상 최초로 20억 뷰를 돌파한 바 있다. /양성운기자

성공하려면 '분명'해져라

진격의 2위 '빅맨' '골든크로스'… 인물 관계·내용 분명
불안한 1위 '닥터이방인' '너포위'… 장르·관계 애매모호

KBS2 월화드라마 '빅맨'과 수목드라마 '골든크로스'가 분명한 내용으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경쟁작인 SBS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과 수목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의 경우 부실한 내용을 스타가 대신 만회하고 있다.

탄탄한 내용은 인기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빅맨'은 시청률 11.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월화드라마 1위인 '닥터 이방인'(11.7%)을 0.3%포인트 차이로 따라 잡았다. '골든크로스'도 지난 5일 시청률 10.1%(동일 기준)로 경쟁작 '너포위'(10.6%)와의 격차를 0.5%포인트까지 좁혔다.

'빅맨'과 '골든크로스'는 인물간 관계가 분명하다. 악인과 선인 혹은 악인끼리의 대립이 극에 안정감을 준다.

'빅맨'은 강지환과 최다니엘이 현성그룹을 두고 대결한다. 김지혁(강지환)은 돈도 권력도 없는 인물이다. 강동석(최다니엘)은 재벌 2세인 냉혈한이다. 현재 강동석에 맞서는 김지혁의 처절한 모습이 우리 사회의 99%를 대변하며 통쾌함을 주고 있다.

'골든 크로스'에선 악역끼리 대결한다. 김강우는 16회(5일)부터 강도윤과 금융계 거물 테리영, 1인 2역으로 출연한다. 권력자이자 악의 축인 서동하(정보석)에 의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그가 복수를 위해 권력을 쥠으로써 악역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 이종석

KBS2 월화극 '빅맨' 최다니엘

불안한 1위를 지키고 있는 '닥터 이방인'과 '너포위'는 장르의 매력을 살리지 못한 채 스타에 의존하고 있다.

'닥터이방인'은 방송 첫 주, 메디컬·첩보·멜로가 다 들어간 복합 장르의 매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현재, 작품은 박훈과 송재희(진세연)의 멜로에 치우치면서 탄력을 잃었다. 남자 주인공의 대사는 절반 이상이 "송재희"다. 제목이 담고 있는 '이방인'의 의미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장르 중 하나였던 첩보는 부재하다. 시청자는 "이종석 때문에 본다"고 내용을 비난하고 있다.

'너포위'의 흥행 코드는 우월한 외모의 신입 경찰 P4였다. 그러나 산만한 캐릭터와 내용이 극의 안정감을 떨어트리고 있다. P4의 성장을 담아내기엔 청소년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사건 해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P4 멘토인 서판석 역의 차승원은 "은대구(이승기)와 서판석의 대립, 두 남자와 어수선(고아라)의 삼각 관계가 분명하게 그려지면 산만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댄싱9' 시즌2 아이돌 대거 합류

숨은 보석 찾는 '새로운 기회의 장'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엠넷 '댄싱9' 시즌2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어 관심을 모은다.

'댄싱9' 제작진은 "다수의 아이돌 멤버들이 K팝댄스와 비보이 등 각자의 기량으로 춤꾼들의 경연장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8일 밝혔다. 크레용팝과 같은 소속사의 신인그룹 가물치의 멤버 아토(박성현), 걸그룹 와썹의 나리(김나리), 걸그룹 글램의 지니(박진희), 그룹 투포케이의 대일(김대일) 등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제작진은 "이밖에도 연예인 도전자가 더 있다"면서 "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이들로서 평소 숨겨놓았던 재능을 이번 기회를 통해 드러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성황리에 끝난 시즌1에서도 가수들의 도전이 소개돼 강한 인상을 남겼다. 남성 그룹 씽 출신 남진현은 무술과 현대무용을 접목시키는 무대로 결승까지 올랐다. 그룹 몬스터즈 멤버 겸 가수 에스아이씨로 활동했던 음문석의 활약도 뛰어났다.

CJ E&M 안준영PD는 "경연은 춤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이 열려있다"면서 "가수가 아니라 춤을 사랑하는 한 명의 댄서로 지켜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댄싱9' 시즌2는 오는 13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 /양성운기자

가물치의 멤버 아토(박성현)

와썹의 나리(김나리)

신화 이민우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4 엠텐 투어 인 도쿄-엠스텝'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민우 일본 단독 콘서트 '후끈'

6년 만의 무대… 6천여 팬 참관

신화의 이민우가 단독 콘서트를 열고 일본 도쿄를 뜨겁게 달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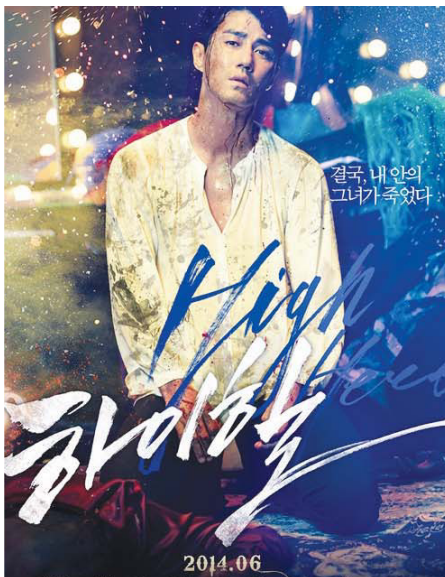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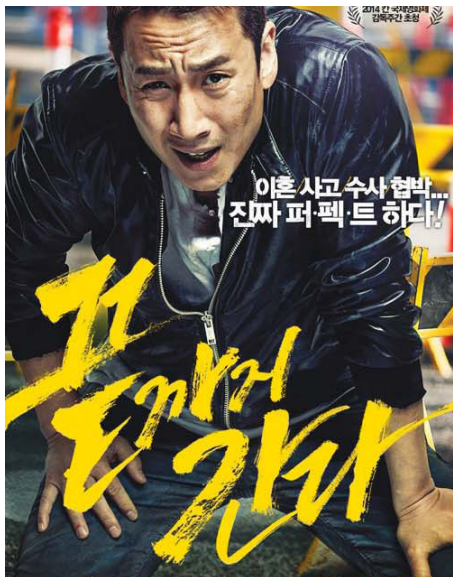
지난 7일 총 2회에 걸쳐 제프 도쿄에서 진행된 이민우의 일본 콘서트 '2014 엠텐 투어 인 도쿄-엠스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민우의 이번 일본 공연은 2008년 열렸던 '2008 엠 라이징 라이브 인 재팬' 이후 약 6년 만에 개최되는 단독 콘서트다. 공연 소식이 전해진 직후 현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공연 당일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공연장 주변을 찾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일본 콘서트는 총 6000여 명의 팬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이민우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약 6년 만에 이민우를 만난 수 많은 일본 팬들은 설렘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시종일관 이민우를 외치며 열띤 반응을 보여 공연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이민우는 '미노베이션' '남자를 믿지마' '더 엠 스타일'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무대를 쉼 없이 오가며 공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스페셜 앨범 '엠텐'의 타이틀곡 '택시'를 비롯해 '러브 슈프림' 등 수록곡 전곡의 무대를 일본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일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이민우는 중국 베이징, 상해에서 아시아 투어를 이어간다.

/양성운기자 ysw@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포스터들. 왼쪽부터 '끝까지 간다' '하이힐' '우는 남자' '황제를 위하여'.

한국 영화 포스터는 다 똑같다?

'끝까지 간다' '하이힐' 등 동일한 캘리그라피 사용
세련됐지만 개성 부족…'해외판이 더 낫다' 의견도

'끝까지 간다'부터 '하이힐', '우는남자'등 최근 개봉작과 오는 12일 개봉을 앞둔 '황제를 위하여'까지. 최근 극장에 걸린 한국 영화 포스터가 모두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작돼 관객들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 포스터들은 하나같이 주인공의 얼굴 아래로 영화 내용을 함축한 문구가 한 줄 내지는 두 줄 정도 삽입돼 있다. 제목 또한 큼지막한 캘리그라피로 적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름다운 서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한 캘리그라피는 전문적인 손 글씨 기술을 가리키는 말. 최근 영화·드라마 포스터를 비롯해 각종 디자인 상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캘리그라피가 대세라고 해도 같은 시기에 개봉한 영화 모두가 비슷한 느낌의 포스터로 등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 영화 관계자는 "관객들이 의아해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이힐' '우는남자' '황제를 위하여'는 모두 한 사람이 쓴 글씨다. 원래 이 영화들은 개봉 날짜가 겹치지 않았는데 각자 사정이 생겨 우연찮게 비슷한 시기에 극장에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디자인 업체 B모사의 실장이 영화 포스터 손 글씨를 잘 쓰기로 소문나 일감이 몰린 것이다. 하지만 '명필' 실장의 솜씨가 아니더라도 최근 한국 영화 포스터들이 마치 유행처럼 모두 캘리그라피로 포스터를 만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사실 한국 영화 포스터가 모두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제작된 한국영화의 포스터는 하나같이 정직한 고딕체를 사용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선 고딕체부터 날려 쓴 손 글씨까지 다양한 폰트를 이용한 포스터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선 캘리그라피가 독점한 모양새다. 고딕체든 캘리그라피든 내용과 관계없이 비슷한 디자인의 포스터가 쏟아지자 관객 사이에선 '식상하다', '무슨 영화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등의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흥행몰이 중인 '끝까지 간다'는 짜임새 있는 연출과 탄탄한 대본을 바탕으로 쉴 틈 없는 긴장감을 선사한다며 입소문을 타고있다. 특히 중간 중간 등장하는 미묘한 상황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한국형 블랙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포스터만 봤을 땐 '끝까지 간다'가 어떤 장르의 영화인지 알기가 어렵다. 오히려 해외판 포스터가 영화의 느낌을 더 잘 담아냈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한국 영화 포스터는 하나같이 세련됐고 잘 빠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의 장르와 내용을 고려한 개성 넘치는 다양한 포스터가 부족한 현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올 여름 달굴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개최
스티브 안젤로·샤샤 등 80여 팀 참여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4'가 올 여름 한국을 뜨겁게 달군다.

올해로 3회째다. 이번에는 13~14일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초대형 규모로 열린다. 어보브 앤 비욘드·스티브 안젤로·폴 반 다이크·샤샤 등 전 세계 최정상 80여 팀의 아티스트가 4개의 대형 무대에서 화려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올해에는 일렉트로닉 음악의 탄생 배경이 된 암스테르담과 베를린의 작은 클럽을 재현한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지가 새롭게 마련됐다. 라이징 스타 디제이들의 음악을 클럽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

본 행사가 끝난 다음날인 15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리버파크 수영장에서 울트라 풀파티가 열려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더 체인스모커스·우멧 오즈칸·티페인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아티스트와 버벌·피터 홀맨·디제이 훈 등 세계가 주목하는 라이징 스타가 출연한다.

지난해 열린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3' 모습.

한편 이번 축제의 부대 행사로 마련된 카운트다운 파티가 지난달 9일 중국 상해의 대형 클럽 미스트를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열려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23, 24일과 31일에는 국내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클럽에서 진행된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은 1999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 브랜드로 올해 16년째를 맞았다. 올해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 총 9개국 5대륙에서 열린다. 앞서 2월 남아프리카와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각각 16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문의: 1544-1681

/탁진현기자 tak0427@

'엣지 오브 투모로우'.

'엣지 오브…' 황금연휴 극장가 장악

톰 크루즈 주연의 SF 전쟁 블록버스터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황금연휴에 극장가를 장악했다.

8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4일 개봉한 이 영화는 지난 4일간 누적 관객 수 160만7989명을 기록했다. 7일 하루동안 전국 795개 상영관에서 43만3818명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흥행은 6·4 지방선거일을 시작으로 6월 6일 현충일,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화는 개봉 전 이미 30%에 육박하는 예매 점유율로 흥행을 예고했다. 주인공이 외계 종족이 만든 타임루프에 빠져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전투하는 일을 그렸다.

한편 이날 한국 영화 '끝까지 간다'(16만8752명)가 뒷심을 발휘해 한 단계 상승한 2위에 올랐다. 3위와 4위는 각각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14만1980명) '말레피센트'(11만966명)가 차지해 외화 강세를 나타냈다.

/탁진현기자

가족의 선거

지난 주 지방선거는 2세들의 전쟁이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에겐 '우리아빠 최문순'이라는 표어를 내세운 예쁜 두 딸의 유세가 화제였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후보의 아들은 한 포털에 아버지에 대한 지지 호소 글을 올려 낮았던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반면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보를 '미개하다'고 발언함으로써 정후보의 지지율을 꺾어놓았다. 그리고 유력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고승덕 씨의 친딸은 자신의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폭로성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중 가장 주목 받은 것은 단연 고승덕 후보의 친딸이다. 가족주의가 견고한 한국에서 보통은 자기 가족을 어떻게든 두둔하는 판에 그녀는 친부의 인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개인적 복수든, 가족의 복수 대행이든, 한국 학생들을 위한 결단이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남이 아니라 한때 시간을 나눈 친아버지다. 당선이 돼도 안 돼도 그녀의 입장에 서보면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막상 문을 열면 그 앞에 예기치 않던 다른 모습을 볼 것만 같다. 한 성인 여성의 주체적인 결단이라 해도 미래에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어떤 순간들은 있을 것 같았다. '난 괜찮아'라고 애써 씩씩하게 웃던 만화 주인공 캔디가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았던 게 생각난다면 나의 과민한 감상주의일까.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형식으로든 트라우마를 짊어지지 않을까 하는 나의 '오지랖'과는 달리 주변의 진취적인 전문가들은 걱정할 것 없다, 극복할 것이다, 딸은 아버지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진보 성향의 누리꾼들은 그녀를 잔 다르크로 비유하며 환호한다. 어르신들은 잘못 키운 딸년이 애비 앞길을 막았다고 패륜이라 한탄한다.

그러고 보면 나를 포함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신의 과거나 고정관념이나 희망사항을 투영해서 상대와 상황을 바라볼 뿐이다. 관객이 되기란 늘 쉬울 뿐이다. 당사자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3	7
	6			3			1	
			9	6				8
1				7		8		2
8		6		9				3
5				1	2			
	3			8			4	
9	7		6		5			

					3	8		
	4		5		7		3	1
					8			7
	7					6		2
			1	5	9			
3		8					5	
2			9					
4	5		6		2		7	
		1	3					

스도쿠 정답

4	1	9	2	5	8	6	3	7
2	6	8	4	3	7	5	1	9
3	5	7	9	6	1	4	2	8
1	4	3	5	7	6	8	9	2
7	9	5	8	2	3	1	6	4
8	2	6	1	9	4	7	5	3
5	8	4	3	1	2	9	7	6
6	3	1	7	8	9	2	4	5
9	7	2	6	4	5	3	8	1

7	9	5	2	1	3	8	4	6
8	4	6	5	9	7	2	3	1
1	3	2	4	6	8	5	9	7
5	7	9	8	3	4	6	1	2
6	2	4	1	5	9	7	8	3
3	1	8	7	2	6	9	5	4
2	8	7	9	4	1	3	6	5
4	5	3	6	8	2	1	7	9
9	6	1	3	7	5	4	2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상업광고 연출가 꿈 이뤄질까 성공힘들어 다른 분야 찾도록

복바치 남자 83년 3월 26일 밤 10시

Q 저는 김상회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이용하여 제 주변에 여러 사람의 사주를 대신 제가 상담 의뢰하여 좋은 반응과 그들로 하여금 고마운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인데 상업광고분야에서 연출자가 되고 싶다는데 잘 될 수 있는지요? 32세이며 3월 26일 생으로 밤 10시가 생일이랍니다.

A 현재와 미래에 발복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사주구조와 운에서 진출하려는 계열과 맞아야 하겠지요. 식신격(食神格:내가 생해주는 오행)인데 인수(나를 생해주는 오행)와 재성(재물을 나타내는 오행)이 미약합니다. 사회성이나 조직성은 대인관계에 융화가 잘 되고 있으나 PD가 되기 위한 직업성으로는 인수와 재성이 없어 엑스트라 정도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왜 생긴 것인지가 새삼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노력만 갖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PD가 아니더라도 언론인으로는 진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백호살(강인함)이 있어 종래에는 뜻을 이루게 되니 한발 물러나서 생각해보십시오.

아픈 모친 요양원 모셔도되나 비영리재단 장소 찾아 보세요

배두산산 여자 41년 6월 19일 윤달 저녁 먹을때

Q 저의 친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있으나 도맡아서 모실 형편이 되는 사람이 없어 요양소로 모시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가기 싫어하십니다. 노인의 건강이므로 내일을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1941년 6월19일(윤달)저녁 먹을 때가 생일입니다.

A 친구 분 모친께서는 사주에 금목상전(金木相戰:쇠와 나무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목(木)은 간장을 나타내며 금(金)은 폐를 말합니다. 충살과 형살이 공존 하고 있어서 오래 끄는 병이 될 수도 있으나 무자대운(戊子大運) 2014년(甲午년)이 와서 다시 세운을 충(沖)하고 있군요. 월일이 병신합(丙辛合)되어 있고 기운이 멸하게 되어있으니2015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고비가 됩니다. 겨울철을 잘 넘겨야 하는데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지막 가는 길은 다 같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이리저리 정신없이 돈 잘 추스리도록 올바른 장례문화를 만들어 가는 비영리재단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9일 (음 5월 1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웃을 일 있을 때 즐겨라. **60년생** 서두르면 사과할 일 만든다. **72년생** 결정이 난 일은 왈가왈부하지 말라. **84년생** 동료와 함께 가는 것이 이롭다.

49년생 막힌 일은 풀려나간다. **61년생**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은 삼가라. **73년생** 꼼수 부리면 번번이 퇴짜 맞는다. **85년생** 기회가 왔으니 죽을 각오로 덤벼라.

50년생 귀찮다고 격식 간소화 말라. **62년생** 경사 뒤 작은 고민이 생긴다. **74년생** 할 수 있는 일만 하려는 생각 버려라. **86년생**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발생한다.

51년생 귀인 도움으로 급한 불 껐다. **63년생** 손해를 보더라도 룰은 지켜라. **75년생**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 결과가 좋다. **87년생** 뜻밖의 프러포즈 받고 싱숭생숭~.

52년생 일이 꼬여서 한숨만~. **64년생** 자영업자는 오늘 할 일 못하면 한이 된다. **76년생** 상대방 저의를 잘 살펴라. **88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늘도 돕는다.

53년생 위로는 조용히 하는 게 좋다. **65년생** 집안의 큰 짐을 지게 돼 답답~. **77년생** 직장인은 조직서 존재감 보여준다. **89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성은 잘 살펴라.

42년생 당장 손해 보더라도 원칙 지켜라. **54년생** 꼭 선물해야 할 사람이 생긴다. **66년생** 힘 있는 상사와 맞서지 말라. **78년생** 벼랑 끝 위기서 탈출을 한다.

43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55년생** 운전 등 안전사고 조심할 것. **6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용기를 낸다. **79년생** 마음 상해도 따뜻한 손을 먼저 건네라.

44년생 자녀 제안은 재검토할 것. **56년생**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68년생** 어려울 때 함께 할 벗이 있어 든든~. **80년생** 경쟁자보다 유리한 국면을 맞는다.

45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57년생** 배속의 찌꺼기가 확 배출 된 느낌~. **69년생** 욕망을 버리면 모든 게 가벼워진다. **81년생** 뭐든 해야겠다는 강박관념 버려라.

46년생 실망은 말라 끝이 좋으니~. **58년생** 경쟁에 나서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70년생** 반대의 함성을 잘 들어라. **82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드디어 듣는다.

47년생 낯선 환경은 익숙해진다. **59년생**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꼭 챙겨라. **71년생** 은인에게 보답할 일이 생겨 즐겁다. **83년생** 입김이 강한 상사의 눈치 적당히 보라.

홍명보호 가나 평가전 '최종 점검'

한국-가나 평가전을 앞두고 훈련중인 태극전사. /연합뉴스

H조 러시아-알제리 맞춤 상대 10일…사상 첫 원정 8강 가늠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브라질 입성을 앞두고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의 성과를 점검받는 마지막 평가전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10일 오전 8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한판 대결을 펼친다. 그동안 공수 조직력과 세트피스 완성에 집중적으로 훈련한 홍명보호의 단결력을 점검하는 경기다.

특히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경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팀은 이번 가나 평가전이 끝나면 11일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 사용할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포스 두 이구아수로 이동한다.

태극전사가 상대할 가나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7위로 한국(57위)보다 20계단이나 높다.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포르투갈·미국과 함께 '죽음의 G조'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가나는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경우 만날 수 있는 상대국 가운데 하나다.

가나를 상대하는 홍명보호는 튀니지전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선 무대에 대비한 베스트 11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박주영(아스널)과 구자철(마인츠)이 나란히 원톱 스트라이커와 섀도 스트라이커로 나서 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좌우 날개는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맡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6월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골 맛을 봤던 지동원(도르트문트)은 손흥민과 왼쪽 날개 자리를 놓고 선발 경쟁에 나선다.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스완지시티)-한국영(가시와 레이솔)이 맡는 가운데 포백(4-back)은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김영권(광저우 헝다)-곽태휘(알 힐랄)-이용(울산)이 나설 전망이다.

중앙 수비수 홍정호는 발등 부상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아 선수 보호 차원에서 벤치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는 2011년 6월 가나전에서 페널티킥 선방을 포함해 눈부신 방어력을 보인 정성룡(수원)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샤라포바 2년 만에 단식 정상

생애 두 번째 프랑스 오픈 우승

마리아 샤라포바(세계 랭킹 8위·러시아·사진)가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 상금 2501만8900 유로)에서 2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샤라포바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 드 롤랑가로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시모나 할렙(4위·루마니아)을 2-1(6-4 6<5>-7 6-4)로 꺾었다.

2012년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샤라포바는 2년 만에 프랑스오픈 트로피를 다시 안았다. 우승 상금은 165만 유로(약 23억원).

샤라포바에겐 메이저대회 다섯 번째이자 프랑스오픈으론 두 번째 우승이다. 샤라포바는 지난해에도 프랑스오픈 결승에 올라 우승 기회를 잡았지만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에게 밀려 준우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어깨 부상으로 4개월간 공백기가 있었던 샤라포바는 올해 4월 포르셰 그랑프리, 지난달 마드리드 무투아오픈에서 우승한 데 이어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하면서 제 궤도에 완전히 올라왔음을 알렸다. /양성운기자

신인 백규정 롯데 칸타타 오픈 우승

'거물 신인' 백규정(19·CJ오쇼핑·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 칸타타 오픈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백규정은 8일 롯데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파72·6237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8언더파 198타를 적어낸 백규정은 2위인 장하나(22·비씨카드·16언더파 200타)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 4월에 열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에 이어 개인통산 2승 째를 거뒀다. 또 대회 첫 날부터 단독 선두 자리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상금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허윤경(24·SBI저축은행)은 중간합계 8언더파 208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디펜딩 챔피언'인 김보경(26·요진건설)은 7언더파 210타로 공동 13위에 그쳤다. /양성운기자

■ 잠실

KIA	000	002	001	3
L G	450	605	00X	20

△승리투수=리오단(3승 5패) △패전투수=홀튼(4승 6패) △홈런=조쉬벨 9호(1회 3점) 오지환 3호(4회 2점·이상 LG)

■ 목동

두산	111	200	006	11
넥센	701	000	001	9

△승리투수=이용찬(2승 2패 8세이브) △패전투수=손승락(1승 3패 16세이브) △홈런=김현수 9호(4회1점) 칸투 13·14호(4회1점·9회2점) 이원석 4호(9회3점, 이상 두산) 박병호 26호(9회1점, 넥센)

■ 문학

롯데	100	100	001	3
S K	000	000	000	0

△승리투수= 옥스프링(6승3패) △세이브투수= 김승회(6세이브) △패전투수= 고효준(2패) △홈런= 히메네스 13호(4회1점, 롯데)

■ 대전

삼성	040	000	300	7
한화	000	020	000	2

△승리투수= 윤성환(5승3패) △패전투수= 송창현(1승5패) △홈런= 김태균 6호(5회2점, 한화)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보험료 30세여	보험료 40세남	보험료 40세여	보험료 50세남	보험료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환급률	표준이율 환급금	표준이율 환급률	표준이율 × 1.2 환급금	표준이율 × 1.2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